

JUNE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바다무지개

2016년 6월 초

6월 6일 현충일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언론사 : 충청투데이 인터뷰

방송일 : 2016. 5. 3.

학벌·스펙 탈피한 능력중심 인재 채용... 지역 경쟁력 높인다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현문즉답(現問卽答)'의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만연한 학벌과 스펙 중심 채용을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벌과 스펙을 넘어 선 능력중심사회의 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범 이사장이 밝힌 대한민국 인력채용의 미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만난 박 이사장은 2014년 취임 후 '물음이 있으면 즉시 답한다'는 현문즉답의 마음가짐으로 산재한 인력문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했고 내달 30일에는 충남지사 방문계획이 잡혀 있는 등 충청권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정부의 능력위주 대한민국 건설 기조 선봉에 서 있는 박 이사장을 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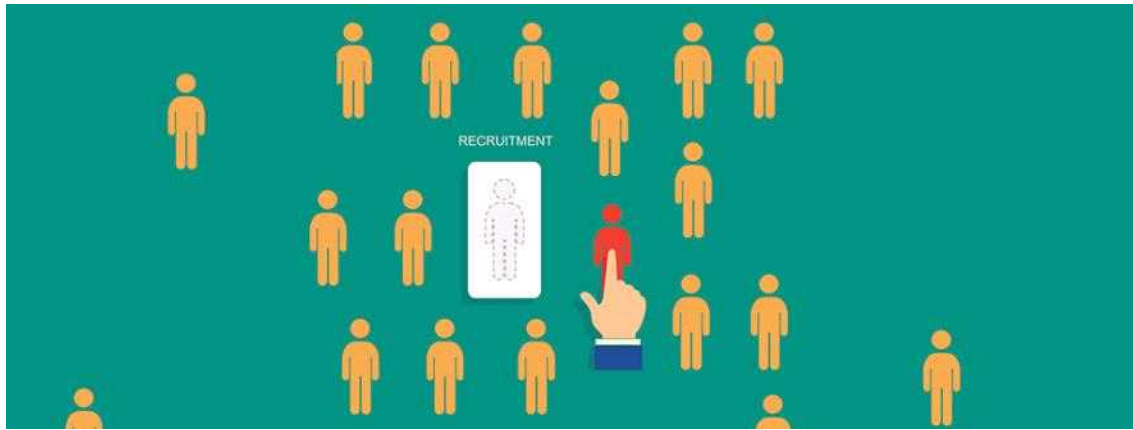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기업경영학회가 수여하는 기업경영대상을 받은 소감은?

▶“기업경영대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고용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공단의 부서간 벽 없애기,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기여에서 비롯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 고객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CEO로서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가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벌파괴,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핵심국정과제 2개인 국가직무능력표준 마련과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자부심도 크다. 하지만 아직도 닫힌 고용시장 때문에 학벌중심의 사회문화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좌표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공정사회다. 닫히고 분절된 노동시장 아래에서 기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환경 아래 근로자와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와 임직원 1300명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NCS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NCS의 도입 현황과 효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인턴 142명을 서류전형 없이 NCS에 기반해 능력중심채용을 실시했다. 이들은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이중 70% 정도가 최종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다. 산업현장과 부합하는 체계적 인재 양성과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NCS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NCS에 기반한 실무교육과 훈련과정으로 개편하고 있다. 또 기존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이 개편되고 새로운 자격 제도인 과정평가형자격이 도입돼 자격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890개에 이어 올해는 1000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재직자 훈련에서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게 된다.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에서 NCS에 기반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4166명의 신규직원을 능력중심으로 채용했다. 올해는 참여기관이 100개 더 확대된다. 지난해 NCS에 기반한 채용을 실시한 전력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채용이 직무적합성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87%로 선발의 질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절차상으로도 허수지원자가 감소하고 전형별 참여율은 높아져 채용의 효율성도 향상됐다. 기업에서도 교육훈련 시간은 줄어 들고, 생산성은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한 전산 관련 업체의 경우 NCS 기반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로 독자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기간이 3년에서 1.1년으로 앞당겨졌으며,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고 이직률은 7%에서 3%로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올해 성과향상의 중점 점검사항은.

▶ “올해는 현 정부 4년 차를 맞이해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부터 권역별로 성과향상전략회의를 소속기관 현장에서 개최하고 일학습병행제와 K-Move, 사업주훈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성과창출 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 2014년 8월 취임 후 공단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현문즉답(現問即答)이다. 공단의 고객은 기업, 재직자, 외국인근로자, 자격시험수험생 등 매우 다양해 고객의 수가 연간 8백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현장경영 역량이 사업성공의 핵심요소다. 고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 가서 경청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전파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학습병행제·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충청권 맞춤형 진행사항이 있다면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다. 현재 과도한 학벌 등의 스펙쌓기로 인한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유발, 기업이 원하는 인력부족이 일학습병행제가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다. 일학습병행제는 청년에게는 조기 고용시장 입직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NCS에 기반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전국 6800여개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1만개 기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주)위드텍 등 337개며, 현재 7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대전전자디자인고 등 4개 학교, 4년제 대학교의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배재대학교 등 2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학 등 듀얼공동훈련센터 4곳도 운영중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화업종 지원센터(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 기술기업이 밀집돼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 30개 기업, 학습근로자 150명의 참여를 목표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훈련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인력양성수요를 파악, 훈련기관 선정, 훈련실시, 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2015년에는 51개 훈련센터가 개설한 훈련과정에 5만 3000여 명의 재직자와 구직자가 훈련에 참여했다. 올해에는 더 많은 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1개의 훈련센터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5만 70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대전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혁신과정' 등에서 426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등 3곳이 공동훈련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엔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대한민국명장이 10여명 가량이다. 대전에서 대한민국명장 확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 사람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605명의 명장이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기계와 화공, 공예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에 대해 4월 22일까지 188명이 접수 했다. 대전지역에서도 금년에 미용, 공예, 철도보선 분야 3명이 접수했다. 이들은 6월에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면접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8월에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나 지부·지사에서도 명장을 발굴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책자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학습근로자와 우수숙련 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전은 보일러와 인장공예 등에서 명장이 배출됐으며 특히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철도와 관련한 기업과 기술인이 많다. 이런 환경을 활용해 명장과 명장이 되려는 숙련기술인과의 멘토링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대전에서도 많은 명장이 나올 것이다."



160526-27(금) "EPS Conference in Ulsan"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울산광역시는 지난 5.27-28 양일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 초청 'EPS Conference in Ulsan'을 공동개최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EPS Conference in Ulsan"을 개최하고 EPS 15개국과 라오스를 포함한 16개국 주한 대사 부부를 05월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로 초청하였다. 27일 국제인력본부장 김평희, 외국인력국장 우봉우 님과 함께 통도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법인 통도사자비원 대표이사) 향전영배 님을 접견하고 통도사찰을 관람한 후 한국의 친환경자연염색체험도 실시하였다. 어제 26일에는 공단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시찰하고 고래 축제 등을 관람하였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는 베트남 이현정, 캄보디아 신지아, 네팔 스네하 3명이 통역으로 참여했다.

특히, 울산 지역산업 연계형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특화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울산광역시-송출국가가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창조도시 울산의 국제 브랜드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울산의 산업클러스터 시찰 및 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추진되었다.

향후 우리 공단은 정부3.0시대 공단-지자체-송출국가 3자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전국 4만5천여 중소기업에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PS국가 문화탐방

스리랑카



수버 알루아우르다크 웨와!!

(Suba Aluth Awuruddak Wewa!! - Happy New year)

4월에 맞이하는 스리랑카 새해(Sinhala Tamil New Year)

글·사진 : 김경일 부소장, 김대영 인턴(KOICA 스리랑카사무소)

동북아시아에 태음력에 따른 음력설이 있다면, 남아사아의 스리랑카에는 스리랑카만의 점성술에 의해 시작되는 '새해'가 있다. 스리랑카의 대표적 민족인 싱할라족과 타밀족 모두는 이 전통적인 점성술에 따라 4월에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한다.

이 4월은 태양이 스리랑카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 때이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추수를 마치는 시기이다. 스리랑카의 새해 일정은 모두 점성술사에 의해 결정된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스리랑카의 전통 점성술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한 해는 태양이 마샤 라시야(Masha Rashiya, 물고기 자리)를 지날 때 시작하여 미나 라시야(Meena Rashiya, 양 자리)를 지날 때 끝난다. 그리고 태양이 한 해의 끝인 미나 라시야를 지나 새해의 시작인 마샤 라시야에 이르는 약 몇 시간 동안을 기념하며 이를 '상서로운 시간(Auspicious tim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새해와 비슷하게 스리랑카의 새해도 가족 모두가 모여 기념하고 일가친척을 방문하여 축하한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요리부터 세배까지 점성술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각자의 종교에 따른 의식을 치르거나 전통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이런 스리랑카의 '새해' 문화에 대해 직접 스리랑카 공영방송 루파바히니(Rupavahini) 생방송 현장에 따라가서 찍은 영상들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보겠다.

날짜별, 시간별 2016년 스리랑카 새해 일정표

스리랑카 2016년 새해 일정표(Avurudu Schedule) - 시간 및 옷 색깔, 얼굴 방향은 그 해 점성술사에 의해 결정된다.	
4월 8일 (일요일)	달을 보는 날
4월 13일 (수요일, 새해)	2016년 4월 13일 13:24에서 2016년 4월 14일 02:12분까지 사원방문 님(마고사)나무 수액(Margosa Leaves Juice)을 넣은 목욕물로 신을 기리며 2015년 마지막 목욕을 하는 날(아무 때나)Taking the last shower for the 2015 while Commemorating the God(With water mixed with Margosa leaves juice)
4월 13일 19:48	소리나는 폭죽을 터트리며 새해를 시작(Ascendant of New Year)
4월 13일 20:06	2016년의 첫 번째 불을 밝히는 시간 2016년 처음으로 음식을 시작하는 시간 끼리밧(우유밥)을 만들 의상 : 녹색옷 - 얼굴은 남쪽을 향해야 함
4월 13일 20:54	2016년 첫 식사 시작, 2016년 처음으로 업무(공부, 요리, 기타 잡다한 일 등)를 시작하는 시간 아버지가 램프에 처음으로 불을 밝히는 시간 비틀(Betel)잎을 손아래 사람에게 주는 시간
4월 16일 (토요일) 10:41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의 머리에 오일을 바르며 신의 가호를 비는 시간 (Hisa Thel Gama) 의상 : 파란색옷 - 얼굴은 서쪽을 향해야함
4월 18일 (월요일) 06:27	첫 출근, 등교(집 밖으로 업무를 위해 떠나기) 전에 흰 옷을 입고 끼리밧(우유밥)을 먹음 의상 : 흰옷 - 얼굴은 동쪽을 향해야함
4월 새해 이후 어느 날	지역 주민들과 주말에 아유르드 스포츠를 함

위 시간 및 복장 색깔, 향해야 하는 방향 등은 해마다 다르며 스리랑카 점성술사가 시간을 결정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대로 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새해를 기린다. 사실 요즘은 서구화가 되었고, 전통의상이 번거롭기 때문에 전통의상과 색깔을 챙겨 입지는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의 일정대로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변함없다.

○ 4월 8일(일요일)

스리랑카의 음력 달력의 시작의 달을 보는 시간이다.

○ 4월 13일 새해 당일

새해가 되기 전 또는 당일 아침,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슷하게 스리랑카 사람들도 부모님의 집으로 귀성길을 떠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거의 운행하지 않으며, 운행을 한다고 해도 손님이 없어서 늦게 출발하거나 운행 간격이 크다. 수도인 콜롬보(Colombo)는 거의 텅 빈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웬만한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아준다. 다행히도 대형슈퍼마켓은 업체별로 날짜를 지정해 새해인 13일, 14일을 번갈아가면서 쉬어주니, 외국인인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지는 않을 수 있다.

새해 당일이 되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2015년의 마지막 목욕을 한다. 2016년은 신을 기리면서 님(마고사)나무 수액(Margosa leaves juice)을 넣은 물로 목욕을 하는데, 이는 점성술사가 해마다 해에 따른 다른 약초를 결정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준다. 목욕은 특별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당일 아무 때나 하면 된다.

2016년 4월 13일 13시 24분에서 2016년 4월 14일 02시 12분까지는 사원을 방문한다. 이 시간은 Punya Kalaya(종교시간)이라고 하며 싱할라족들은 불교사원을, 타밀족들은 타밀사원을 방문하여 신에게 새로운 해를 위한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

19시 48분이 되면 새해를 알리는 폭죽을 시작한다. 사실 이 시간 외에도 집에 있는 내내 폭죽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불꽃이 퍼지는 폭죽이 아니라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폭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소리 비슷하게 들린다. 이 폭죽 소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새해 의식을 치를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폭죽소리와 함께 각 일정대로 새해의식을 진행한다. 폭죽 사진은 찍을 수 없어서 생방송 현장에서는 폭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폭죽 대신 했던 전통춤 모습을 볼 수 있다.

20시 06분이 되면 새해의 첫 불을 밝혀 우유를 끓인다. 이때 전통적으로 스리랑카 사람들은 녹색옷을 입고 남쪽을 보고(해마다 점성술사에 의해 색깔과 방향이 변한다) 그 집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을 지피고 모두가 모여서 우유를 끓인다.



[사진 1] 녹색 옷을 입은 스리랑카
사람들과 단원들(남자 107기 황광순
단원, 여자 106기 김은혜 단원)



[사진 2] 녹색 옷을 입은 스리랑카
사람들과 단원들2(남자 107기 황광순
단원, 여자 106기 김은혜 단원)



[사진 3] 녹색옷을 입은 스리랑카 사람(P
ara Nileptha Ranasinghe, 스리랑카 공영
방송 루파바히니 Rupavahini 아나운서)과
단원들



[사진 4] 새해 첫 불을 켜는 모습

특이한 점은 우유를 끓이는 냄비에서 우유가 넘쳐흘러야 새해의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믿는다고 한다.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갔던 집은 일부러 물이 넘치게 우유를 끓이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5] 우유가 넘치고 있는 모습(밑에
떨감용 나무는 코코넛 나무 껍질이거나
코코넛 껍질이다.)



[사진 6] 끼리뻬를 만드는 아주머니

우유가 넘치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한다. 음식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음식인 끼리밧(우유밥)을 하게 된다. 이때 역시 녹색옷을 입고 음식을 만들며, 음식을 하는 동안에는 남쪽을 향해야 한다.



[사진 7] 리밧을 만드는 손



[사진 8] 램프 불붙이기

20시 54분이 되면 음식 만드는 것을 끝내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램프에 불을 붙이면 서 식사를 시작하고, 새해 처음 일(Work)을 시작하는데, 이는 가령 공부라던가, 청소 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진 10] 비틀잎

또 우리나라처럼 집안 어른이 손아래 자손들에게 세배돈을 주듯이 여기 스리랑카도 손아래 아이들이 집안 어른께 절을 하면 비틀 (Betel)잎을 준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비틀잎 사이에 돈을 넣어서 주기도 한다.

그리고 새해의 첫날은 이렇게 끝난다. 14일인 목요일도 휴일이나 이때는 주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나 아유르드 스포츠(Avurudu Sports, 코코넛 나무 높게 올라가기, 베게싸움, 복치기 등등 신년 스포츠)를 하루 종일 하는 날이다.

○ 4월 16일 토요일 아침 10시 41분

새해가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날짜 또한 점성술사에 따라 정해진다), 집안의 가장이 손아래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를 비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Hisa Thel Gama) 이때 의상은 파란색을 입고 얼굴은 서쪽(해마다 다르다)을 향한다.



[사진 11] 파란색 옷을 입고 서쪽을 보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있는 모습

출처 : Muthiyangana Raja Maha Viharaya, Badulla (Muthiyangana Temple in Badulla)

○ 4월 18일 월요일 아침 6시 27분

새해가 지나고 처음으로 직장, 학교 등에 출근하기 전, 흰 옷(해마다 다르다)을 입고 끼리뼉을 먹는다. 이때 얼굴은 해가 뜨는 동쪽(해마다 다르다)을 향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의민족이라고들 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더 백의민족이다. 사원갈 때, 새해의 시작, 장례식 모두 흰옷을 주로 입는다. 여튼 흰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옷으로 하얀색 끼리뼉을 먹고 한해의 첫 출근을 시작한다.

이렇게 스리랑카 새해일정은 끝난다. 점성술에 따라 시작되는 4월의 스리랑카 명절은 지나간 해와 새로운 해가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나 같은 외국인은 새해가 2번이니 뭔가 한 살을 두 번 먹는 느낌이긴 하지만 2016년 한해가 시작될 때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우리도 4월의 스리랑카 새해에 해와 별과 달의 기운을 듬뿍 받고 다시 한 번 2016년 한 해 파이팅해 보자!

Srilanka 인력선발포인트제도 설명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Center 센터장 정호진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주요도시인 Colombo, Rathnapura, Kandy, Kurunegala에서 인력선발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Rathnapura에서 포인트시스템 설명회

- 2016년 5월 12일 Rathnapura에서 인력선발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마치고 Colombo 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Kandy에서 포인트시스템 설명회

- 2016년 5월 13일 Kandy에서 포인트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Colombo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urunegala에서 포인트시스템 설명회

- 2016년 5월 13일 Kurunegala에서 설명회 마치고 Kandy 로 이동합니다.





약 29,000개 기업 사업 중단 및 해산

- 올해 4개월 동안, 총 28,894개 기업이 사업 임시중단, 중단 및 해산함.
- 국가기업등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4개월 동안 사업 임시중단, 중단 및 해산 기업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내용에 따르면, 2016년 4월 5,844개 기업이 사업을 중단(임시중단 1,584개 업체 포함)했으며, 해산 기업 수는 840개사임.
- 올해 4개월 동안 해산 기업의 수는 3,75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으며, 그 중, 93,5%의 기업이 정관자본 100억 동 미만의 중소기업들임. 이 밖에, 활동을 중단한 기업의 수는 25,135개사로 4개월 동안 총 28,894개 기업이 해산 및 사업을 중단,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이와 반대로, 2016년 4월, 신규설립 기업의 수 10,954개사, 등록금액 62조 동으로 3월 대비 각각 11,1%, 14,7% 감소함.
- 한편, 4개월 동안 신규기업 및 등록금액은 34,721개 기업, 248.2조 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9%, 52,8% 증가함. 만약, 증자금액까지 더하게 된다면 총 투자금액은 801.5조 동을 기록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신규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427,2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함.
- 다시 활동을 재개한 기업은 11,331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79,4% 증가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8, Apr, 2016]



'기회'는 곧 '도전'!

- 글로벌무역 진출에 있어 베트남은 브랜드 네이밍 구축의 기회와 수출 증가 가능성을 상당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술, 제조 환경, 원산지 제도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
- 베트남은 차세대 지도부의 결정을 통해 다수의 신 자유무역협정에 참가, 대부분의 수출제품이 대폭 감세 혹은 면세를 받음. 이로써 베트남은 보다 많은 수출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각 수입국의 제품 원산지, 품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음.
-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글로벌무역체계 구축 세미나'를 통해 프랑스 카지노 그룹의 Mr.Jacques Fourvel 사무총장은 "식품안전기술표준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유럽연합국의 요구가 나날이 더 엄격해 지고 있다. 베트남 수출업체는 관련 법규 및 해당 제품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함.
- 이미 글로벌 수출을 진행 중인 탕롱 주식회사의 레 안 뚜언 부회장은 "글로벌 수출 제품 모두 항생제 및 식물보호약품 사용 특정기준에 부합해야하며 가격 경쟁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베트남 수출기업은 해외소비자 수요증가를 위한 지속적으로 제품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품질 보장에 가장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함.

- 현재, 베트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슈퍼마켓에서 베트남산 제품을 찾아보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임. 그 중, Big C, Metro와 같은 일부 대형슈퍼마켓은 자체 유통망을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행함.
- Big C는 현재 각 섬유, 농산물, 해산물, 공예품, 원목 등을 포함, 연간 대략 1,000개 컨테이너를 유럽, 미국 등에 수출 중으로 그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 소속 유럽연합시장부서 당 황 하이는 “아직까지 다수의 베트남 수출기업에게 자체 브랜드를 사용한 글로벌시장 진출은 ‘사치’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네이밍 구축에 있어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 정부의 정책지원과 해외 진출해 있는 베트남 기업들과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함.
- 이번 세미나에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품의 핵심요소인 제품 품질보장 이외에도 국내생산기업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브랜드 네이밍 구축 추진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함.
- 총리는 ‘2020년 글로벌무역 진출’ 촉진을 위한 의결 1513/QĐ-TTg을 승인함. 본 의결은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럽, 북미,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 유통대기업을 상대로 원활한 수출을 위한 목표를 내재하고 있음.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8, Apr, 2016]

산업단지 및 경제지구, 약 14,000건 투자 유치

- 2016년 4월 누계기준, 베트남 산업단지와 경제지구는 약 14,000건의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유치했으며, 전체 등록자본금은 각각 1,175조VND, 1,460억 달러임.
-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월까지 베트남은 산업단지 310개, 경제지구 16개를 설립했으며, 전체 면적은 각각 85,600ha, 814,792ha임.
- 전체 산업단지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는 217개로 면적은 58,600ha이며, 기초 공사 중인 단지는 93개로 면적은 27,100ha임.
-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 중, 현재 임차된 면적은 27,500ha이며, 입주율은 건설 중에 있는 산업단지 까지 모두 포함시 48%이나, 현재 운영 중인 단지만 보면 입주율은 69% 이상임.
-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산업단지와 경제지구의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유치는 230건으로 투자등록금액은 2,790백만 달러를 기록함. 증자사업은 165건으로 700백만 달러 기록.
- 2016년 4월 동안, 산업단지와 경제지구는 FDI 자본(증자, 신규 포함) 3,490백만 달러를 유치함. FDI의 신규등록금액 및 증자금액은 각각 베트남 전체의 66%와 45%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4월 누계기준, 산업단지와 경제지구는 FDI 사업 6,678건(1,460억 달러) 유치를 했으며, 한편, 국내사업은 6,957건(1,175조 VND)을 유치함.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10, May, 2016]

하노이, 2030-2050년 10가지 우선투자유치

- 베트남 총리는 사회경제, 관광 및 문화, 무역,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초점을 둔 2030-2050년 하노이 우선투자유치 사업을 승인함.
- 수도권 주요사업 내용은 서호 지역, 호아락 공업지역, 국립-국제 전시회 센터, 하노이역, 노이바이 국제공항, 박흥 역, 2번 국로-18번 국로 교차 지역, 관광지역(따오, 다이 라이 호수 등등), 빙이엔시 무역센터, 빙 쑤언·푸리·비엠티 logistics 센터 설립 및 개발을 중점으로 함.
- 수도권 하노이와 인접 지역의 연결을 도모하는 국제 교류시스템 형성에 초점을 둔 계획으로서 하노이 홍강 기준, 박닝-빈푹 지역(북쪽방향)을 연결하는 국제 전시회장 설립 예정
-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logistics 센터는 경제와 무역의 교차점인 비엠티, 빙이엔, 박닝, 박장, 흥옌, 하남 지역에 100-500ha 규모로 설립 될 예정이며, 하노이의 경우 북하노이, 남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포함한 총 3곳에 설립할 예정
- 2030-2050년 logistics 센터 설립 규모는 총 1.750ha으로 예상됨.(하노이-400ha, 빈푹-200ha, 박닝-200ha, 하이즈엉-200ha, 흥이엔-150ha, 하남-150ha 화빙-100ha, 푸토-100ha, 타이응우옌-150ha, 박장-100ha)

- 관광 및 문화 사업으로는 베트남의 수도이자 북부 최대 발전도시인 하노이 내 혹은 인근 외곽 산, 호수, 강과 같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특성 활용 및 역사와 문화가치를 보존한 관광명소 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춤.
- 문화유산 및 유적지, 전통 마을, 생태지역, 환경보호구역,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특정 농업지, 국가 안보와 개발 잠재력 보호를 위한 그린벨트 지역을 조성함.
- 홍강, 타이빙강, 꺼우강, 다이강, 두옹강 등 북부에 위치한 강가 지역의 경우 홍수와 같은 재난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개발 조건 형성 및 제방 강화 예정. 또한, 호수 배수량을 늘려 수로 교통 개발과 함께 도심 속 경관까지 조성하는 일거양득에 효과를 노리고 있음.
- 그 외에도 총리는 넷뎀-노이바이, 아시아 경제회랑(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등을 우선투자유치 사업으로 제안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11, May, 2016]



베트남 근로자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쩡(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MOU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을 만들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한다.

이 장관은 베트남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도 예방,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강화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지금껏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으나,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는 '한국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해외취업교육기관) 졸업자'에만 주어졌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천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도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 장관은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ASEAN)+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고 ASEAN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직업훈련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 직업훈련 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아세안의 직업훈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15 12:00 송고

호치민시, 교통과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ODA 물색 중

- 호치민시는 투자 계획부에 공적개발원조(ODA) 동원 및 환경, 교통수단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 특혜와 같은 도움을 요청해왔음.
-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함.
 - 1. 도시철도 5호선(사이공 다리 ~ Can Giuoc 버스 터미널)
 - 2. 도시철도 3호선(Ben Thanh ~ Mien Tay 버스터미널)
 - 3. 도시철도 1호선(Ben Thanh 중앙 정류장)
 - 4. Tau Hu - Ben Nghe - Kenh Doi - Kenh Te canal 유역의 3단계의 걸친 중요 수질 환경 복원 프로젝트
- 1군 Ben Thanh 시장과 12군 Tham Luong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호치민시는 투자 계획부에 프로젝트 수정건과 더불어 계약업체 선정 검토와 승인을 제안했음. 계약 체결은 결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 의해 프로젝트의 수정이 승인된 후 진행될 것임.
- 5월 12일 투자 계획부와 관련 부처가 정부 부처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가 현재 공적개발원조 받은 프로젝트는 총 17건으로 총 자본 104조 5천억 동(46억 8천 달러)임. 그리고 그중 88조 9천억 동이 ODA 금액이며 나머지는 기타 자금임.

- 1분기 ODA 지출금은 목표했던 것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ODA 프로젝트에서 지출금이 낮은 이유는 부지정리, 거주민 보상, 이전이 느리고, 건설의 어려움, 지하 공사, 설계 수정, 시간 소모가 많은 절차, 바뀐 대출 조항 때문임.
- ODA에 관련한 베트남의 요구사항으로, 2016년 1월에 열린 회의에서 각 성들과 시에 외국 차관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 재무부 산하 부채관리 및 외부금융 부서의 부서장인 Truong위해, 국가 예산법이 지역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을 활발히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을 활발히 빌리게 되면 예산 적자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가 언급한 국가 예산법은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임.
- Long은 베트남이 2017년부터 상업적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음. 2017년 무렵 ODA 자본금이 감소할 것임. 그러므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함. 도시 및 큰 성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자금을 위해 상업적 대출을 받아야만 함.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185 May 16, 2016]



이기권 고용부 장관-따오 응옥 쯡 베트남 노동장관 양해각서(MOU) 체결

(하노이=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2012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가 재개돼 베트남 신규 근로자가 국내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따오 응옥 쯡(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고용허가제 체결국이다.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는 모두 10만3천여 명에 달한다.

양국 간 인력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09년에는 일년 동안 1만3천199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왔다.

베트남은 2014년말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6천934만명에 달하고, 만 39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할 만큼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다.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는 29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노동자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신규 도입을 중단했다.

이후 베트남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1년 1만2천570명에서 2012년 7천309명, 2013년 2천738명으로 급감했다. 고용허가제가 중단되고 도입된 베트남 근로자는 대부분 특례 제도로 재입국한 성실 근로자다.



이기권 고용부장관, 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베트남을 방문, 따오 응옥쥁(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고,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6.5.17 [고용노동부 제공] photo@yna.co.kr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 선발을 재개하고, 불법체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이 정하는 대로 강화된 자국 근로자 불법체류 관리 방안을 실행한다.

양해각서 부속 합의서인 로드맵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10개 도시·성(하노이, 응에안, 하딩 등) 거주자 및 불법체류자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 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베트남을 방문, 따오 응옥쥁(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고,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6.5.17 [고용노동부 제공] photo@yna.co.kr

올해 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한 베트남 근로자는 재입국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여 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17 20:14 송고

베트남 근로자 다시 한국으로 내일 고용허가제 MOU 체결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쯡(Dao Ngoc T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MOU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천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도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베트남 근로자 다시 한국으로 내일 고용허가제 MOU 체결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12년부터 중단됐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오는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쥡(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져 정부가 2012년 8월 도입을 중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MOU 체결로 높은 현장 적응력, 기술 습득력 등으로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MOU는 또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을 만들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베트남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어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도 방문해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어려운 투자 여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지금껏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지만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한국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해외취업교육기관) 졸업자'에만 제공됐지만이번 방문에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33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ASEAN)+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고, ASEAN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직업훈련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 직업훈련 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아세안의 직업훈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머니투데이

베트남 고용허가 인력 하반기부터 재도입...정부 간 MOU 체결
MOU 체결과 함께 베트남 부총리 예방,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인정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입력 : 2016.05.15 12:00

올해 하반기부터 베트남 고용허가 인력이 재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오는 17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장관은 MOU 체결 후에는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고용허가제는 2012년 8월 이후 중단돼 왔다. 이 장관은 이번에 따오 응옥 쑹(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인력선발 재개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다 원활히 공급된다.

MOU에는 불체자 다수발생 지역 선발배제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과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이 포함된다. 불법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인력교류 활성화,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요건 강화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빅씨(Big C) '우리들 마음속 국산품!'

-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빅씨는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들 마음속 국산품!' 프로모션을 개최함.
- 타 프로모션과 달리 '우리들 마음속 국산품!'은 100% 베트남 산 제품만을 사용 및 홍보함. 특히, 품질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발굴 및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화 바익 껍(달랏지역)의 친환경 채소, 싸우 띠아(껀터 지역)의 매실 주는 소위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상품이었으나 현재 빅씨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생산되고 있음.
- 이러한 국산품은 각 빅씨 매장 내 가장 큰 공간에 전시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인 소비자의 마음 속 국산품 자리 또한 더 넓어지길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관계자는 말함.
- 최소 5%에서 최대 49%까지 대폭 할인 중인 본 프로모션의 국산품은 농산물, 주방용품 등 약 100여 가지의 다양성 또한 갖춤.
- 빅씨는 지난 기간 동안 협력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네이밍 구축과 시장 점유율 상승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힘.
- 대표적인 예로 상기 화 바익 껍 사는 안정적인 슈퍼마켓 공급 유통망 구축에 성공, 친환경 채소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됨. 싸우 띠아 사의 경우 껀터지방 내 소규모 판매의 형태를 탈피, 빅씨 껀터점과 협력하여 대규모 생산 라인 및 수출 지점 확보에 성공함.
- 이와 같은 베트남 기업의 내수시장 공략과 베트남인의 국산품 사용증가는 향후 베트남 수출입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17, May, 2016]



빠른 성장 및 역동적인 베트남 소비 시장

- 베트남 경제, 특히 베트남 소비시장은 향후 보다 더 역동적으로 변화 및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이와 함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 최근, Nielsen(닐슨) 기업이 발표한 베트남 소비자신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베트남 소비자신뢰지수는 109점으로 전 세계 5위를 차지함.
- CEL 컨설팅 기업의 Julien Brun 이사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낙관과 함께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 금액은 시장 발전 촉진에 기초가 될 것임. 특히, 도심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농촌지 소비자들 또한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됨.
- 이 밖에, 베트남 소비자들은 현재, 전통 생활 방식에서 IT사용과 함께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현대 소매 유통업체들에게 보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하지만, 베트남 소비자들은 여전히 구매결정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임. 가정생활을 향상시켜주는 서비스 및 상품에만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베트남 소비자들의 3가지 소비 기준으로는 1) 교육 2) 건강관리 서비스 3) 가정용 케어 제품 등임.

- 베트남 소비자들은 소득의 10~12%를 자식 교육에 지출함. 제약 관련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했으며, 소비자 중 50%가 가정용 케어 제품에 지출함.
- 현대 유통망과 편의점 체인은 보다 확대 될 것이며, 이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 경로가 될 것임. 편의점 체인은 지난 해 300% 증가했음.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우려들이 기존 전통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현대 유통망으로 갈아 타게 되는 주요 원인임.
- 이 밖에, 프로모션 활동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트 부분 Saigon Co.op과 Bic C가 소비자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조사됨. 편의점 부분은 Vinmart와 FamilyMart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또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및 기타 장비들로 인터넷 접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7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57%가 하루에 3~4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조사됨.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21, May, 2016]

2016. 05. 27

2016. 05. 26 사전취업교육 398명 수료식

- 네팔의 EPS 사전취업교육기관은 2016. 05. 26 398명에 대한 EPS 사전교육 수료식을 갖고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수료자에 대한 기념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2016. 05. 29

한국 EPS 관련자 네팔 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

- 네팔의 사전취업교육기관에 고용노동부 양승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국장 우봉우, 차장 김기수, 노사발전재단 이동원, 중소기업은행 김제락, 대한건설협회 진광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보도자료

★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

장병현

□보도일시 : 2016.5.16(월)

□총 2 쪽

☎021-7918-6012

저처럼 고국에 돌아와 성공하세요!

인도네시아 귀국성공근로자 UCC 공모전 『행복한 귀家』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센터장 장병현)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하에 E-9 외국인근로자로 한국 취업 후 귀국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5월 12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UCC 공모전은 귀국근로자의 모범적 성공사례를 현재 한국에서 취업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전파함으로써 귀국 예정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미래설계 동기부여 및 자발적 귀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이 공모전에는 총 7명이 귀국 후 본국 내 정착 성공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였으며, 심사 결과 동부 자바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SUCIANI씨가 최우수상, 자카르타에서 한국기업 매니저로 근무 중인 RULLY SOLICHATUN씨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RULLY SOLICHATUN씨는 “이 공모전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특히 귀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일했던 경험과 한국어를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향후 한국에 초청되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귀국 성공이야기에 대한 강연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EPS 바다무지개 스리랑카 커뮤니티



일시 : 2016. 05. 01(일) 15:00 ~18:00

장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문화원

주최/주관 : 스리랑카 커뮤니티

후원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주요대상 및 참석자 현황:

- 함안지역 스리랑카 근로자 20명
- 창원외국인력센터 / 전문가

주요사항 : 폐식 후 스리랑카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상담

- 스리랑카 정부의 EPS정책 및 자진 귀국 안내

- 노사관계 및 생활 상담

시 간	내 용
14:00 ~ 15:00	등록 귀국지원, 고용체류상담
15:00 ~ 15:30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15:30 ~ 16:20	특강 원명 스님
16:20 ~ 17:00	광명사합창단 심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등
17:00 ~ 17:30	축하공연 연화무, 덕산스님 통기타연주
17:30 ~ 18:00	행사마무리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환경 정화활동 2회차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의 공헌 한다는 큰 의미를 담아 센터 주변에서 시작하여 장군천과 조각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직접 줍고 분리 수거를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창원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2016.05.01(일) 15:00~17:00

장소: 장군천~조각공원 일대

내용: 쓰레기 수거, 주변환경정비 등 지역환경정화활동

참여인원: 베트남 판 티 리엠 외 21명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무료진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승도·우암재단
과 함께하는 무료진료

일 시 :

2016년 05월 08일(일) 10:00 ~ 16:00

장 소 : 마산합포구청 광장앞

대 상 : 외국인근로자 375명

의료진 : 의사 및 약사, 접수 50명(통역자
원봉사자 포함)

내 용 :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산
부인과, 치과, 신경과, 안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등 9개과 무료진료 및 의약처방,
기념품 제공







2016년 경상남도 세계인의날 기념 행사



2016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주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주관으로 2016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대한 기념식과 화려한 축하공연에 이어 오직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세계음식체험 마당, 그리고 다양한 복리증진 부스와 오후에 실시된 외국인들의 넘치는 끼 자랑 대회

월드 스타킹 대회 까지 화합, 행복, 즐거움이 가득했던 2016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행사를 통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 2017년 경상남도 세계인을 기약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시 : 2016.05.15(일) 11:00~15:00

장소 :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 야외광장

참여인원 : 지역주민,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1000여명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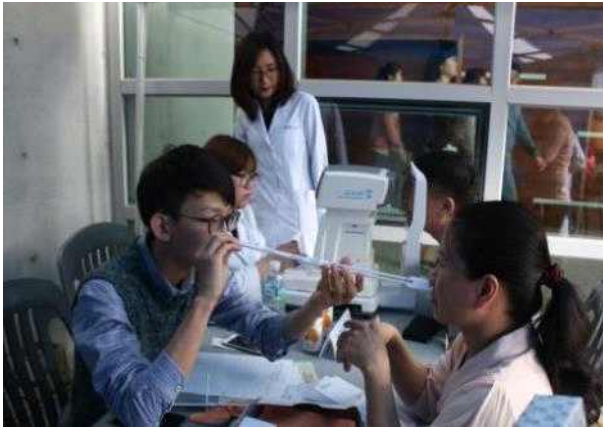
기 념 식



세계음식 체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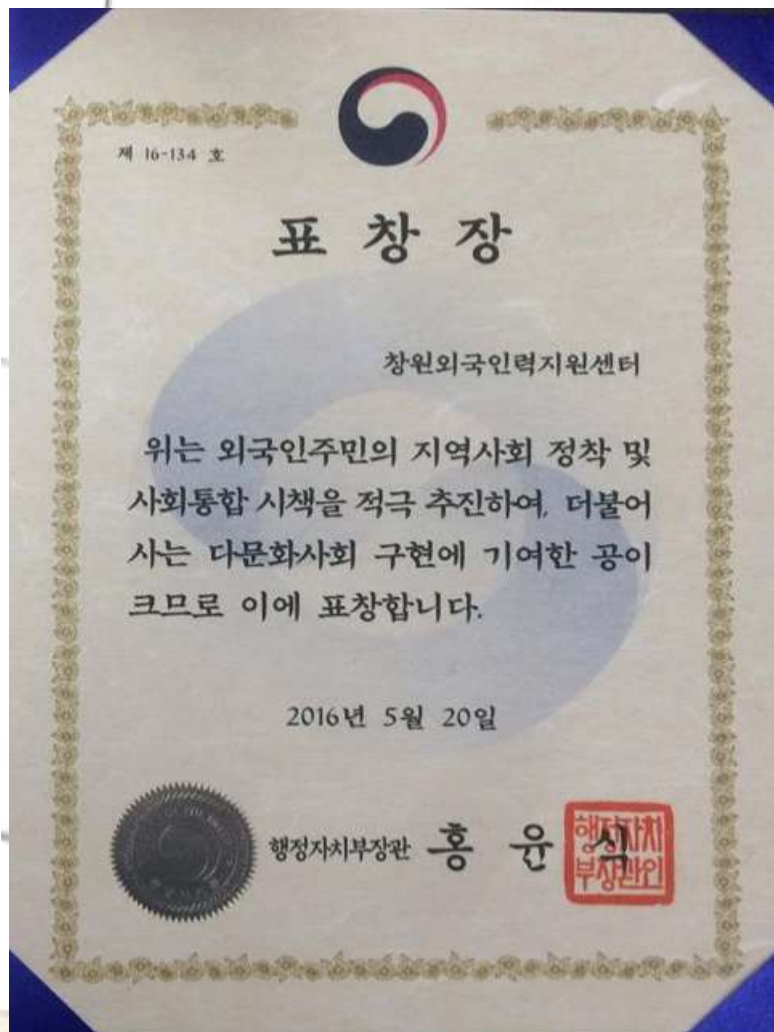


복리증진체험 부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 적응에 대한
지원과 노력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다문화
사회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
을 수상하였습니다.



취창업훈련과정 자동차정비 훈련 개강식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 취창업 훈련과정 중 자동차 정비과정의 개강식을 실시했습니다.

'경남자동차 정비학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과정은 총 10회차의 자동차 정비 훈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정보화 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일시 : 2016. 05.01(일) 10:00~17:00

장소 :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참가인원 : 캄보디아 근로자 VUTH RITHY 외 22명



취창업훈련과정 자동차정비과정 2회차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 취창업 훈련과정 중 자동차
정비과정의 2회차 교육훈련이 있었
습니다.

'경남자동차 정비학원'에 모인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
니다.

2회차, 3회차 앞으로 10회차 까지
꾸준히, 열심히 자동차정비과정을
수료하여, 한국에서 지식과 기술을
모두 갖춘 성실한 근로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16. 05.08(일)

10:00~17:00

장소 :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참가인원 : 캄보디아 근로자 VUTH
RITHY 외 23명



자동차정비과정 3회차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사업인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 3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접 자동차 부품을 만져보고
조립, 분해 해보며,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동차에
대해서 더욱 깊고 실용적인 지식을
쌓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시: 2016.05.22(일) 10:00~16:00

장소: 경남자동차 정비학원

내용: 자동차정비 이론 및 실습

참여인원: 베트남 근로자 찬딘돈
외 17명



농기계 수리과정 2회차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사업인 취창업 훈련과정
-농기계 수리- 2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이루어지는
금번 훈련과정은 훈련생들의 열의
와 경남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협
조를 통해 활기차고 유익하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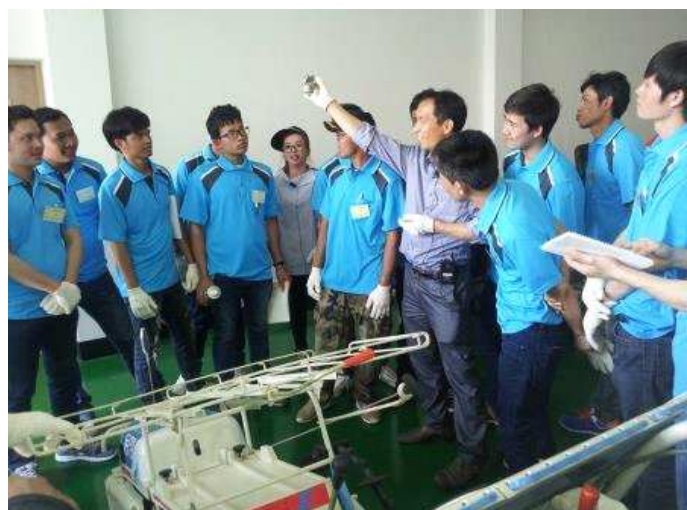
또한 센터장님께서 직접 훈련생들
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하여 고국에 돌아
가 한국과 같은 경제부흥과 성장
을 이루어내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귀국의식교육"을 실시해주셔서
훈련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일시: 2016.05.22(일) 10:00~16:00

장소: 경남농업기술원

내용: 농기계수리 이론 및 실습

참여인원: 캄보디아 근로자 섬반
외 24명



5월 산업안전 자체교육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사들이 직접 한국어
교육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산업안전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산업안전자체교육에서는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인
교육회원들의 이해와 흥미를
위해 "만화로 보는 안전수칙"
자료를 통해 각종 산업안전
수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2016.05.22(일)

11:00~12:00 / 14:00~15:00

장소: 각 반 교실

내용: "만화로 보는 안전수칙"

참여인원: 각 반 한국어

교육회원



감사의 달 스승의 은혜 전달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는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교육회원들이
직접 한국어 강사에게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전달식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회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남다른
애정을 더하여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주시는
기초반의 "이순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시: 2016.05.22(일)

15:00~

장소: 105호 교육실

내용: 5월 감사의 달 스승의
은혜 전달식

참여인원: 기초반 강사
이순만, 스리랑카 근로자
다순 외 4명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귀국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응원 및 지도점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매 주 실시되는 귀국지원사업은 TOPIK3급 자격취득과정, 자동 차정비과정, 농기계수리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3가지 귀국지원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의 "노태진"차장님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의 "사공빈" 대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국 후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전달해주신 격려의 말씀이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시: 2016.05.29(일) 10:00~16:00

장소: 경남자동차정비학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대상: 베트남 근로자 찬딘돈 외24명 / 베트남 근로자 웬 반 꾸옹 외 13명



제46회 TOPIK 합격증 수여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6회 TOPIK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했지만 꾸준히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퇴근 후 기숙사에서도 공부를 이어온 수강생들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욱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16.05.29.(일) 10:00~

장소 : 상담실

대상 : 베트남 근로자 HO SY THO
외 28명



심층상담 MBTI 검사



- MBTI 성격유형 간이검사 실시
- 성격유형에 따른 직업유형 탐색
- 개인별 미래의 직업 찾기
- 2015년 한국의 직업전망 안내
- 미래 직업에 대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I, II
- 심층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국가	담당자	시행일시	인원(건)
베트남	이현정	5월 1일(일)	14
캄보디아	신지아	5월 1일(일)	15
우즈벡	강류다	5월 8일(일)	9
네팔	스네하	5월 8일(일)	13
인도네시아	김소운	5월 22일(일)	19
스리랑카	전문자	5월 22일(일)	9
방글라데시	칸	5월 29일(일)	1
필리핀	박은정	5월 29일(일)	4
중국	소유채	5월 29일(일)	6
계(명)			90



제 4차 HCC Home coming Community



일시 : 2016년 05월 29일 (일)
12:00~13:00

장소 : 각 국가별 지정 교실

내용 : 귀국의식함양 교육(HCC)

주제 : 네 번 째이야기, 직업윤리와 직장예절(해취근로자 역할 자세)

2016년 05월 29일 일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귀국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일환 중 1년 미만 초기입국자를 위하여 제 4회 HCC를 실시하였습니다.

제 4회 HCC 주제는 '직업윤리와 직장예절(해취근로자 역할 자세)'였습니다. 제 5회 HCC는 2016년 06월26일 일요일 12:00~13:00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G-1)변경

필리핀 상담원 : 박은정

○상담개요

- 방글라데시 근로자는 2013.07.18부터 현재까지 (주)오코에서 근무하고 있으나하기 본국에 있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보내야 때문에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지청에 진정하고 싶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였고, 근로자는 2015.12.31자로 사업장변동신고가 된 상태임.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근로자는 (주)오코에서 2013.07.18부터 ~ 2016.05.10까지 근로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2015년 8월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2,0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는 2015.12.31자로 사업장변동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2016.5.10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변동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알선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임을 알고 놀라서 손발을 떨며 노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는 상태였음. 진주고용센터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로자를 우선 진정시키고, 현재 불법상태를 합법으로 정정을 한 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기로 함.

- 사업장에서는 내부 사정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고도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

CFC 우수상담사례

-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한 근로자를 계속 일을 하게하였다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합법화 할 수 있도록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사업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로 인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시킨 후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겠으니 다른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함.
- 2016.3.28 사업장에서는 다른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고 나서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여 합법화 될 수 있었음.
- 2016.4.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1,380만원을 지급하고 2016.04.11.까지 나머지 체불임금 1,180만원을 지급 약속을 하고 자율합의에 의한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 2016.4.12.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체불임금을 4월30일까지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겠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때 진정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나이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출국하고 싶어 사업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2016.04.21. 진주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5.10 체류기간이 만료되므로 사건을 빠른 시일내 처리해 주길 요청함. 진주노동지청에서는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면 출석일자를 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2016.04.25. 근로자는 진주노동지청에서 출석하여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차액에 대해 진술을 함.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진정하였지만 사업장에서 약속한 일자에 임금과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보증보험금과 소액체당금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비자 변경을 하기로 함

CFC 우수상담사례

-2016.04.27. 근로자는 진주노동지청에 다시 방문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으로 고용되었던 기간만큼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을 할지, 아니면 2015.12.31.자로 퇴사일을 정할 지에 대해 의논하였음.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고 퇴사한 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정산을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체류자격변경을 신청을 하기 위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함.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였고, 서류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창원이 아니라 김해라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2016.05.02.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G-1 비자변경 신청서류를 접수 함.

-신청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신원보증서, 거주지 확인서(집 계약서), 결핵 검사 확인서, 비자변경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2. 상담포인트

1)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소송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 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CFC 우수상담사례

2)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변경 허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여 받은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체류자격 활동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신청 시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첨부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수수료 13만원(등록증발급 수수료 3만원 포함)

-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함.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사례: 비전문취업(E-9)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장기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기타(G-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적용대상: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자와 보호자
- ②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③ 각종소송 진행 중인 자
- ④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자
- ⑤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⑥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⑦ 외국인 환자
- ⑧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 제출서류: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자, 고용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신원보증서, 체불금품확인원 등

3) 체류자격 변경 (G-1비자 변경신청)

- G-1 비자는 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질병, 소송, 임금체불, 난민, 환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G-1-10) 단수비자가 있음

- G-1-4비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자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자로 체류기간 6개월 범위 내로 기본서류와 노동부 제출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에 필요한 생계유지 능력 심사확인서를 준비 하면 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추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추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코이카 이달의 우수사진



'Better School for Girl' 장학금 수여식
(출처 : 캄보디아 KOICA 사무소 페이스북)



꺼공주 시네마천국 협력활동
(출처 : 캄보디아 KOICA 사무소 페이스북)

CFC 6월 행사 안내

첫째 주	▶ 상담원 직무강화교육 ▶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취·창업컨설팅”사전교육
둘째 주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진주사랑의집 ▶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제 2단계 제 3과제 “진로 컨설팅(15:00~17:00)-103호, 106호 ▶ 2016년 전반기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2회차)-106호 ▶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13:00~15:00)-통영고용센터 강당
셋째 주	▶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제2단계 제3과제 “진로컨설팅”(15:00~17:00)-103호, 106호 교육실 ▶ 힐링닥터스 무료진료(15:00~17:00)-다목적홀 ▶ 제 25회 무료 이미용 서비스 실시 ▶ 2차 EPS 법률교육(자체) 실시(11:00~12:00, 14:00~15:00)-각 교육실 ▶ 경남 1일투어 참가자 접수 시작 ▶ 창원출입국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 통영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 상담원 직무강화교육 ▶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47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시작
넷째 주	▶ 창원출입국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 상담원 직무강화교육 ▶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0:00~14:00) ▶ 경남 1일투어 행사 참가자 접수마감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47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마감 ▶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직무능력성취도 평가(14:00~16:00)-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다섯째 주	▶ 경남 1일투어 행사 실시(09:00~18:00)-산청한방테마파크 ▶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 제1단계 “귀국의식함양교육(HCC)”실시(12:00~13:00)-교육실 및 다목적홀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4:00~16:00)-상담실 ▶ 창원출입국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 상담원 직무강화교육 ▶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CFC와 함께해요☺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요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

< 후원 계좌 >

-후원 해 주셨습니다.-

▶ 통도사자비원 〓 후원금품 1,500,000원

▶ 탁미경(개인) 〓 600,000원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